



코로나19 대응 국내·외 동향

I. 코로나19(COVID-19) 대응 국내 동향

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음 (9.14)¹⁾
-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 - 253.9명(8.23~8.29)까지 증가하였던 1주간 수도권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2주전(8.30~9.5)에는 162.1명으로 낮아졌고, 지난주(9.6~9.12)는 98.9명으로 더 낮아졌음

[표 1]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

	8.16~ 8.22	8.23~ 8.29	8.30~ 9.5	9.6~ 9.12
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				
국내발생	268.4명	331.0명	218.4명	134.6명
수도권	224.3명	253.9명	162.1명	98.9명
해외유입	12.0명	11.6명	11.6명	14.7명
집단 발생 ^{a)} (신규기준)	36건	40건	24건	11건
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	12.4%	21.3%	18.3%	28.8%
방역망 내 관리 비율 ^{b)}	80%미만	80%미만	80%미만	80%미만

a) 집단발생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·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
 b) 방역망 내 관리 비율: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
 ※ 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」, 2020년 9월 14일

-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됨
-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20%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 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

1)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」, 2020년 9월 14일

2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(일)까지 연장함²⁾
-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,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함
 -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·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함
 -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·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함
 -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·소형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함
 -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, 좌석 띄워 앉기,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,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함

2)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」, 2020년 9월 14일

-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함
-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,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함³⁾
-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·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,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
-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9월 27일(일)까지 계속 유지됨
-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
-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임

3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 발표

-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⁴⁾ 잔여 혈청을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음(9.14)⁵⁾

-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 잔여 혈청 1,440건(6.10~8.13 수집검체)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 1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
- 참고로 국민건강영양조사 1차분 잔여 혈청 1,555건(4.21~6.19 수집 검체)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없었음
-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회의(9.2 및 9.9) 결과는 다음과 같음
- 2차분 조사 결과는 검체의 수집 시기가 8월 14일 이전으로 8월 중순 이후의 유행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임
- 해외 사례에 비해 양성율이 낮은 것은 6월부터 8월 초까지 확진자가 적었던 것의 영향으로,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생활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
- 향후 대표성 있는 항체보유율 조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를 활용한 항체 조사를 지속할 예정임
- 추가로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·경산 지역 일반인 및 의료진 등 3,300명과 전국단위의 지역별 항체보유율 확인을 위한 군 입소 장정 1만 명 및 지역 대표 집단 1만 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도 진행하여 보다 상세한 집단면역 정도 등을 파악하여 방역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함

[표 2]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

차수	수집기간	조사건수	항체양성	중화항체 양성	대상 지역
1차	4.21~6.16	1,555건	0건	0건	대구, 세종,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·도
2차	6.10~8.13	1,440건	1건	1건	13개 시·도 ^{a)}

a) 1차에 미포함된 3개 지역(대구, 세종, 대전) 포함

※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발생 현황(정례브리핑)」, 2020년 9월 14일

3)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,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됨
 4) 흡연, 음주, 영양,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하여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함
 5)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발생 현황(정례브리핑)」, 2020년 9월 14일

김은진 입법조사관

『현안 브리핑』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현안의 국내·외 동향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.

